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삽시다.

오늘은 한국의 첫 사제요 순교성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동료순교자들을 기리며 경축하는 날입니다. 순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가시밭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루카 9,1)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바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비롯한 우리의 신앙선조들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15세 때 프랑스 선교사 모방신부님께 영세를 받았으며, 모방 신부님은 똑똑해 보이는 김대건을 최방제, 최양업과 함께 중국 마카오 신학교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7개월 만에 2만2천리 거리인 마카오에 도착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음식이 다른 나라에서 8년을 수련 받고, 24세의 젊은 나이에 꿈에 그리던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어서 빨리 고국에 가서 가련한 양들을 돌보고 싶었지만, 육로나 바닷길이나 다 위험한 상황이어서 기회를 엿보다 어렵게 작은 배 한척을 구해서 그저 바람이 가는대로 몸을 맡겼는데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전국 각지를 걸어서 순방하며 비밀리에 미사와 성사를 주면서 열심히 사목활동을 하시다가 선교사의 입국과 비밀항로 개설을 위해 백령도 부근을 답사하다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아깝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서품 받

은지 1년 만에 잡혀버렸습니다. 배교의 달콤한 유혹을 받았지만, 끝까지 순교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별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지혜 3.3-5)는 말씀처럼 신부님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순교의 월계관이라는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한 우리의 순교자들은 당당히 순교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루카 9.26)

배교의 말 한마디면 살 수도 있었겠지만,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너 천주학생이지!”하고 물으면 순교자들은 자신 있게 “예!”라고 당당히 대답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교우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당당하게 “예”라고 대답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습니까? 자신 있게 천주교 신자로서 누구에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호를 긋고 있습니까? 누가 볼까봐 옆으로 살피고 난 뒤에 재빨리 긋고 있지는 있습니까?

미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빠지는 것도 우리의 신앙선조들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분들은 일 년이 미사 한 번 참례하는 것이 크나큰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고해성사 한 사람을 주기 위해 수백리길을 밤새도록 걸어가서 한 마을에 한 두 명뿐인 신자에게 고해성사를 주고 미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미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편한 것만 찾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찾아서 희생과 봉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피를 흘리는 순교는 할 수 없지만, 일상의 삶 안에서 순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내 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신자답게 봉사하며 사랑하며 살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일상의 삶 안에서의 순교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로마 8.35.39)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가시밭길을 걸어가신 김대건 신부님과 동료순교자들의 순교정신을 본받으며,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세상 안에서 순교하며 살아갑시다.

서문동 본당 허춘도 토마스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천주교회의 주춧돌이 되었던 순교자들을 기리는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교성인들을 본받아 우리 각자도 삶 안에서 겪는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이 전례에 임합니다.

입당성가 : 287번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본기도

†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 이 땅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선택하시어, 오묘한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으로, 하느님의 백성을 자라게 하셨으니, 저희도 죽기까지 복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지혜서 3장 1절-9절

안 내 : 지혜서는 의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묵 상 : 갓은 박해를 이겨내며 주님을 신뢰했던 의인들의 삶은 참되고 빛났으며, 그들의 죽음은 비참한 말로가 아니라 영원한 행복의 문이었습니다.

화답송 :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제2독서 : 로마서 8장 31절-39절

안 내 : 죽음도 삶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묵 상 :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도움에 힘입어, 우리는 어떤 환난과 역경에서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9장 23절-26절

강 론 :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삽시다.’(1-2쪽)

예물준비성가 : 510번 ‘주님께 올리는 기도’

영성체성가 : 498번 ‘예수여 기리리다’

영성체 후 묵상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심없는 사랑입니다.

오로지 하느님에게 인정받을 것만을 생각하고

세상의 인정에 얽매이지 않는 생활입니다.

<침묵>

우리는 생명으로 건너가기 위해 어둔 밤을 지나야 합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하는

연민을 느끼며 함께 고통 받는 체험 없이는

구원으로 나아가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의 사랑과 눈물,

좌절과 희망의 문턱에서 멀리 떠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83번 ‘순교자 찬가’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5,18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 림

■ 9월 예비신학생모임

- 일시 및 장소 : 9월 17일(주일) 12:00 (공검본당 은척공소) 상주·문경지구
- 문의 : 사목국으로(858-3114~5)

■ 여우목 교우촌 및 이윤일 성인상 축복미사

- 일시 : 9월 20일(수) 11:00
- 장소 : 문경 여우목 성지 및 교우촌
- 미사 : 안동교구장, 대구대교구장 및 보좌주교 공동 집전

■ 순교자 현양 성가발표회

- 일시 : 9월 23일(토) 09:30 ~ 17:00
- 장소 : 가톨릭상지대학교 소피아관 대강당
- 종목 : 1) 성가발표 : 합창 혹은 중창 지정곡(순교자 현양 성가 1곡) 자유곡(기타성가 1곡)
※ '가톨릭성가' 외의 곡도 가능합니다.
2) 기타공연 : 악기연주, 춤, 연극, 콩트 등

■ 안동지구 교사 연수

- 일시 : 9월 27일(주일) 13:00 - 18:00
- 장소 : 교구청
- 준비물 : 성경, 필기구, 초등부 교재, 두레판
- 대상 :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담당 수녀
- 참가비 : 1인 10,000원
- 신청 : 9월 21일(목)까지

■ '성경 통독 일기' 연수(동해지구)

- 과정 안내 : 매일 성경을 읽으며 영적 일기 쓰기, 격주로 모여 강의를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내면화하기.
- 연수 일정 : 9월 30일(토)부터 격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9월 30일/ 10월 14일/ 10월 28일/
11월 11일/ 11월 25일/ 12월 9일/
12월 23일/ 12월 30일 - 총 8회
- 장소 : 영해 성당
- 내용 : '성경 통독 일기' 연수(동해지구) (강의와 말씀 심화 프로그램)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주임)
- 대상 : 동해지구 신자
- 회비 : 1인 40,000원 (영적 일기 노트 비용 포함)
-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등

■ 교구장배 게이트볼 대회

- 일시 : 10월 9일(월) 09:00
- 장소 : 안동 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 구장
- 신청 : 9월 20일(수)까지 사목국으로
- 대표자 회의 및 대진표 추첨 : 9월 22일(금) 14:00 교구청 단체사무실

■ 여성연합회 피정

- 일시 : 10월 10일(화) ~ 11일(수)
- 장소 : 강원도 인제 다물 피정의 집, 인제 자작나무 숲
- 대상 : 본당 여성단체 간부
- 참가비 : 45,000원(1박 3식)
- 준비물 : 미사준비, 성서, 목주, 세면도구, 잠바(저녁 추위), 편안한 신발, 모자, 필기도구
- 신청 : 9월 19일(화)까지 사목국

■ 못자리 신앙잔치

- 일시 : 10월 14일(토) 10:00 - 17:00
- 장소 : 가톨릭상지대 소피아관, 운동장
- 대상 :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
- 준비물 : 주일미사 준비, 운동복, 운동화, 개인식수, 명찰(공문 참조)
- 참가비 : 1인 5,000원(유치부 포함)
- 신청 : 9월 22일(금)까지 사목국

■ 2017년 열린 성경 강좌 6

- 일시 : 10월 16일(월) 19: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주제 : 요한 복음 2
- 준비물 : 신, 구약 성경
- 참가비 : 1인 2,000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본당 주임)

■ 교구 말씀축제

- 일시 : 10월 22일(주일) 09:30
- 장소 : 가톨릭상지대학교 소피아관
- 내용 : 성경 암송대회, 성경 장기자랑 및 기타 작품 전시
- 참가비 : 1인 12,000원(도시락, 생수 제공 및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 안동가톨릭문인회 시화전

- 일시 : 10월 21일(토) ~ 29일(주일)
- 장소 : 교구청

■ 가톨릭상지대학교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 수시 1차 모집 : 9월 11일(월) ~ 9월 29일(금)
- 입학문의 : 교무입학처 054)851-3021, 3023
<http://ipsi.csj.ac.kr>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 (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5장

사랑의 결실

확대 가정의 삶

187. 핵가족은 부모님, 아주머니와 아저씨, 사촌과 심지어 이웃을 포함한 확대 가정과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확대 가정에는 도움이 필요하거나 최소한 곁에 함께하며 보여 주는 관심을 필요로 하거나 고통을 겪기에 위안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개인주의는 사람들이 안전한 작은 동지 안에 머무르며 다른 이들을 귀찮은 위험으로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립은 더 이상 평화나 행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여 그들의 삶을 더 편협하게 만듭니다.

자녀 되기

188. 먼저, 우리의 부모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사이들에게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르 7,8-13 참조). 우리는 우리 저마다가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성인이 되어도, 나이가 들어도, 부모가 되어도, 책임이 따르는 자리에 있어도,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자녀의 정체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입니다. 이는 언제나 생명은 우리가 자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도록 합니다. 위대한 선물인 생명은 우리가 받은 첫째 선물입니다.”

189. 따라서 “넷째 계명은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도록 요청합니다(탈출 20,12 참조). 이 계명은 하느님 당신과 관련된 계명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사실, 이는 거룩하고 신성하며 인간 사이의 모든 존중에 뿌리가 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넷째 계명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탈출 20,12). 고귀한 세대 간 유대는 미래의 보증이며 참된 인간 역사의 보증입니다. ……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자녀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명예롭지 않은 사회입니다. …… 그러한 사회는 냉정하고 욕심 많은 젊은이들로 가득 차 버리게 될 것입니다.”

190. 그러나 동전의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창세 2,24 참조) 하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필요한 단념과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혼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버려지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되지만 혼인으로 결합되려면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새 가정은 참된 가정, 안전과 희망과 미래의 계획이 있는 곳이 될 것이며 부부는 진실로 “한 몸”(창세 2,24)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혼인에서 자신의 배우자에게는 많은 것을 감추고, 대신에 그것을 자기 부모에게 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자신의 배우자의 감정과 의견보다 자기 부모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될 수 있는 한 짧게 유지하며 부부는 신뢰와 대화를 증진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혼인은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 되기의 새로운 방식을 찾는 도전이 됩니다.

노인

191. “저를 내던지지 마소서, 다 늙어 버린 이때에. 저의 기운 다한 지금 저를 버리지 마소서”(시편 71[70],9). 이는 잊히고 버림받는 것이 두려운 노인의 간청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도구가 되어 가난한 이들의 탄원에 귀 기울일 것을 요청하시는 것처럼, 노인들의 간청에도 귀 기울일 것을 원하십니다. 이는 가정과 공동체에 주어진 도전을 나타냅니다. “교회는 나이든 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경시는 물론이며, 성마른 사고방식을 따를 수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살아있는 일원이라고 느끼게 하려면 감사와 존중과 환대의 집단 의식을 일깨워야 합니다. 노인들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우리보다 앞서 우리가 가는 길과 우리가 사는 집에서 존엄한 삶을 위하여 날마다 노력해 온 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와 노인이 새롭게 서로를 끌어안는 넘치는 기쁨으로 ‘버리는’ 문화에 맞서 도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다음에 계속 -



협곡열차를 타고

김동남 로사
(안동가톨릭문인회)

수십 년 동안 정기적인 모임을 지속해온 회원 중의 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물론 오랫동안 잘 치유되지 않은 지병으로 고통 받긴 했으나 그녀는 우리들 중 누구보다 봉사활동에 앞장섰으며 특히 노래와 춤은 프로를 능가한 수준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오랜 세월을 같이한 그녀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의기소침하게 했고 잠시 우울증에 빠지게 했다. 죽음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고도 없이 찾아오며 두렵고 허망했다. 그녀가 떠나고 난 후의 첫모임을 나는 백두대간 협곡열차 탐승체험이라는 거창한 제목의 내용으로 회원들에게 전송했다. 왜냐하면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음을 실감해야하니 삶에 대한 에너지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9월 초하루의 날씨는 기대이상이다. 햇살은 가벼웠고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은 눈부셨다. 기껏해야 기차에 탑승한 것 밖에 없는데 일행 모두는 풍선처럼 마음이 부풀어 동심으로 돌아갔다. 차창 밖으로는 바야흐로 여름과 가을의 교대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여름은 얼마나 더웠는지 장마와 가뭄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저 정직하게 자리를 물려 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여름이 기특하고 고마울 뿐이다. 가는 여름을 배웅하고자 일찌감치 찾아온 가을은 또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가는 중간 중간 그림엽서에 등장하면 어울릴 비경이 눈에 들어오면 탄성을 지르고 터널을 지날 때는 열차의 천정에서 뻥뻥거리는 야광별들을 감상하였다.(협곡열차는 일반열차와 다르게 커튼과 화장실과 에어컨이 없으며 대신 차창을 열수 있고 실내는 각종 인테리어로 장식되어 있음)종착지인 철암역에 내렸다. 여기서 40여 분 간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가는 열차를 타야하므로 역구내 매점에서 금방 찌낸 옥수수를 한 개씩 물고 급히 역 건너편 박물관으로 향했다. 태백산맥이 보내는 강원도의 바람은 촉감부터 남다르다. 서늘하고도 신선한 냉기를 품은 그야말로 유기농바람이다. 박물관이래야 광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낡디낡은 집을 태백사에서 매입해 그 시절 그대로의 생활상들을 재현해놓은 것이다. 잠시 우리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50여 년 전의 세상으로 날아갔다. 전시해놓은 주방이 아닌 정지수준의 부엌살림들은 까마득히 멀어져간 추억들을 다시 소환하고 이만큼 잘 살아온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게 했다. 돌아오는 협곡열차는 봉화 분천역에 우리를 내려놓았다. 분천은 산타마을로 이미 유명세를 떨치고 있지만 지금은 여름의 끝자락이라 조용하고 한가하다. 커다란 산타할아버지와 루돌프가 우리를 반겨준다. 점심을 먹은 우리는 산책 중에 빵굽는 카페라는 제목의 찻집을 발견하였다. 여기서는 2시간이 넘는 여유시간이 있는지라 바로 눈앞에서 구워져 나오는 쿠키와 차를 주문한 다음 나는 회원들에게 사인펜과 A4한 장을 내밀었다. 쓸데없는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느니 이 기회에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이의 맨 위쪽에는 살아오면서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과 죽기 전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순서대로 써보라고 적혀있다. 달짝지근한 빵냄새와 커피향이 어우러진 조용한 찻집에서 우리는 학생들 마냥 탁자위에 엎드려 뭔가 열심히 끄적거리려본다. 종이위에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하고 있는 이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소한 일상 가운데에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다.